

#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식재경관의 문화상(文化相)

이창훈 ·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I. 서론

역사마을은 과거로부터 시대적 특성과 지역의 사회발전과정을 반영하며, 오늘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안동하회마을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다른 민속마을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고, 조선시대 가옥형태와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된 가치가 인정되어 201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탈영농화 현상은 하회마을 인구구성과 마을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계유산이 되면서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전통경관에 대한 인위적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을의 구성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의 보존·관리를 위해 진행되었던 종합정비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는 건축물 실태 및 보수를 위한 자료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목 등 외부 공간에 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회마을 수목의 연구를 살펴보면 마을 내 식물상 조사 및 외래종 모니터링 등 조사의 접근방법이 생태학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구사례로 김기송(2015), 최영현(2014)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식물상 파악 혹은 외래식물 현황의 집합과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활용은 수종 열거에 치중하고 있고, 조사 당해연도의 출현종과 비교 가능한 후속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타 강거배(2000)는 마을에 고령의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양진당, 점암정사, 옥암정사 일원의 정원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2017년 상황에서 현재 하회마을 내 수목의 위치, 크기, 규모 등 현황과 주요 수목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찾아볼 수 있는 기초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회마을에 식재된 수목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하회마을 내 식생경관에 나타난 문화상(文化相, 문화와 관련된 모든 모습이나 상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나타난 경관의 생성원인에 대한 진정성 규명을 위한 기초작업은 추후 하회마을의 식생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또다른 원형에 대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안동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 범위 내에 식재된 교목과 관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연구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26세대의 주택에 식재된 교목과 관목, 독방 가로수, 만송정, 마을밖 상당과 중당 일원에 식재된 수목을 연구재료로 한정하였다.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장 수목전수조사를 실시와 주민인터뷰를 통해 식생경관의 문화상을 파악할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 현장조사를 거쳐 하회마을 일원의 교목과 관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 조사된 수목의 위치를 1:1000 수치지형지형도에 CAD로 작성하고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식재현황분석, 문화재지정 가옥과 비조정가옥의 식재경관, 기타 마을 내 산재해 있는 주요 수목의 식생경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회마을 식재경관에서 나타나는 문화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하회마을 전체 식재현황

안동하회마을 내 수목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목 총 2,483주(상록교목 709주, 낙엽교목 1,774주)이고, 관목 총 9,690주(상록관목 3,988주, 낙엽관목 5,702주)로 집계되었다.

상록교목 빈도는 소나무, 주목, 반송 순이고, 낙엽교목은 감나무, 매화나무, 대추나무, 산수유 순으로 조사되었고, 마을 내 분포한 낙엽교목의 수종은 유실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내 건물의 지붕의 높이보다 정원에 식재된 수목의 높이가 높은 수목은 145주로 조사되었다. 지붕보다 높은 수목의 수고분포는 6.5m~ 15m까지였고, 감나무, 은행나무, 모과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하회마을 내부를 구성하는 경관요소 중 건물과 담장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수직적인 경관요소는 주로 수목이다. 그러나 마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중·일 명승의 보존·관리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과제번호 : NRICH-1705-A12F-1)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을길을 따라 속성수(뽕나무, 오동나무, 가중나무 등)에 의해 마을 주변경관이 차폐되는 현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안동하회마을 수목 식재현황도(2017)

## 2. 하회마을 식재경관 분석

### 1) 문화재지정 가옥의 식생경관

하회마을 내부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은 안동 하회 양진당(養眞堂)을 포함한 총 9개소이다. 역사성을 대표하는 양진당, 충효당, 북촌택의 식재경관을 살펴보면, 양진당은 보물 제30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연속되어 건축되어 있으며, 사당만이 북측에 따로 위치하는 공간구조를 지닌다. 안채 일원은 천정을 비워둔 'ㄱ'형태로 외부로부터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 3m미만의 매화나무와 모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양진당의 건물을 포함한 내부 공간의 식재는 단조로우나 안채 앞마당에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양진당 북쪽에 두 개의 불천위를 모시는 사당일원에 오래된 은행나무 2주가 위치한다.

충효당은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솟을대문, 행랑채, 안채 등 부속건물은 남쪽으로 주향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사당을 배치하는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안마당은 유교질서가 엄격히 적용되는 장소이며, 외부로부터 시선이 차단되어 있으며, 충효당 건물 앞쪽 3m미만의 매화나무와 살구나무가 대칭 식재되어 있다. 사당공간에 13대 종부 무안박씨가 심었다고 전하는 수고 8m에 수관폭 10m에 달하는 만지송(수종: 반송)이 식재되어 있고, 만지송 동측에 수고 7.5m의 매화나무가 나란히 식재되어 있다.

충효당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내부 공간의 식재는 충효당 권역과 영모각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충효당 권역은 식재패턴이 단조로우나, 영모각 일원을 포함한 솟을대문 밖의 외부공간에서는 다양한 수종이 출현하고, 수목의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충효당 솟을대문 정면에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방문시 식재한 구상나무와 2016년(전) 반기문 UN총장이 방문시 식재한 구상나무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나, 처음 식재되었던 수목은 고사하고 대체되어 있다.

북촌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84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채, 사랑채, 큰사랑채, 대문간채, 사당 등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남향한 대문간으로 사랑채가 마주하는 구조로, 가운데 중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북촌택은 마당의 공간에 절제된 식재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300년 된 소나무를 비롯하여, 100여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탕자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큰사랑채인 북촌유거 북측면에 식재된 소나무는, 북촌택의 선조께서 화산에서 옮겨 심은 것으로 전해오는 있다. 현재 수세가 약하고 생육상태가 불량하다.

### 2) 하회마을 비지정 가옥의 식생경관

비지정 가옥의 식재형태는 크게 수목과 초화류를 이용하여 정원을 가꾸는 경우와 과수나 채소를 심어 밭을 조성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정원을 가꾼 경우 수종과 식재 형태가 다양해지고, 특히 회양목, 눈주목, 철쭉을 활용한 정형식 패턴이 연출되고 있다.

마당의 밭을 조성하는 경우는 마당공간에 고추, 토마토, 완두콩, 배추 등 식용작물을 경작하고, 담장 안쪽 경계부를 따라 감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고 있다.

주택의 앞마당은 현재 고령화로 인한 지근거리에서 텃밭조성, 민박 투숙객에게 제공할 채소를 경작, 기타 개인선호를 이유로 마당공간을 텃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덮개는 검은색으로 하회마을의 색채이미지와 이질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밭농사 종료 후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발생하고 있다.

### 3) 기타 하회마을 내 주요 식생경관

60년대 이전 하회마을의 봄철 식생경관은 백색계열의 배나무가 마을의 주수종으로 일명 이화촌(梨花村)으로 불리었다는 과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마을로 유입된 향나무류의 식재를 시작으로 배나무의 개체수는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는 마을 내 배나무를 비롯한 모과나무, 사과나무 등 장미과 식물에서 적성병(赤星病)이 다수 발견되고, 적성병의 중간기주 식물인 향나무 16주, 측백나무 12주, 가이즈까향나무가 4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마을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한 중당에서 4주의 향나무가 분포하였고, 적성병 분포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다.

겸암 류운룡 선생이 조성한 것으로 전하는 만송정 숲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수령이 높다고 판단되는 총323주의 소나무를 번호표를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다. 만송정 숲 일원에 일부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한 수목이 발견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된다.

하회마을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 공간인 3당림(堂林) 3곳이 존재한다.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花山, 328m) 중턱에 상당(서낭당), 마을 내부에 하당(삼신

당), 마을공간의 전이지역에 중당(국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신앙과 관련한 의례행위가 행해지며, 위요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상당과 중당은 중심부에 의례공간을 두고 주변에 소나무를 둘러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구조이다.

상당은 화산 능선 중턱에 위치하며, 가로세로 한 칸 규모의 서낭당 반경 약 15~20m에는 평균 서낭당 조성 당시에 인공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고 12m에 근원경 75cm에 해당하는 소나무가 72주가 위치하고 있다. 서낭당으로부터 바로 근접한 소나무로부터 주변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수고 10m 내외에 근원경 25cm에 크기의 소나무 군락이 감싸고 있다.

중당은 마을과 화산자락이 만나는 지역으로 논과 늪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당이 위치한 지대는 종교적 의례를 위한 공간이기 전에 마을과 산, 평지와 경사지의 경계부에서 연결과 더불어 완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이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하회마을 식재경관 문화상의 특성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은 조성연대가 14~16C로 그 역사가 유구하며, 인물과 사건과 관련된 수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 조성된 노거수들을 통해 본 식재경관의 특징은 주요 건조물 주변에 대해 지정 당시의 식재상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 부속 건물이 포함된 공간에는 개인적인 취향의 수목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공간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내의 수목은 그 원상을 변형하지 않으려는 경직성에 치중해 유지 위주의 관리만을 보이며 공간구조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

비지정 가옥은 변화된 생활양식에 맞추어 주택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원을 꾸미는 경우와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마을 내 가옥의 식재유형이 변하는 원인은 탈농경과 산업사회로 기존에 마당에서 이뤄지던 공동작업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마당의 활용기능이 변화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공가의 경우는 기존 소유주들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 시간이 멈춘 듯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는 하회마을 식생경관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접근에 있어, 크게 '생태학적인 접근방법'과 '전통수종의 유무만을 가리는 흑백논리'에 의한 해석이 만연하였다. 생태적인 접근방법의 기본개념은 복원방향이 있어서 인위적인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마을에 존재하는 수목은 자연발생이 아닌 마을주민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식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간에 의한 간섭의 강도에 비례하여 원래 의도대로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전통공간에 부합되지 않는 외래수종, 귀화수종을 향토성과 고유성에 위배된다는 미명하에 역사적 검증이 없이 생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행과

세대,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식재되었던 수목이 갖는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배제된 채 전통수종만이 옳다는 편협된 방향으로 사라져가는 식생경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문화상에 관한 조사자료 구축이 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하회마을 수목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회마을의 문화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동하회마을 내 수목전수조사를 한 결과 교목 총2,483주, 관목 총 9,690주로 조사되었다. 낙엽수는 수종은 감나무 등 유실수가 주를 이루고 상록수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마을에 위치한 가옥 내 공간의 활용 있어 하회마을의 이미지를 고려한 경관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지정 가옥의 식재형태는 주요 건조물 주변에 대해 지정 당시의 식재현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지정가옥에서는 공간이 텃밭으로 주로 이용되어 전통경관과 이질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셋째, 배나무를 활용한 조선시대 이화촌의 명성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이화촌(李花村)으로 명성을 얻었던 기록으로 살펴볼때, 마을 내 배나무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적성병으로 식생경관 훼손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간기주 식물을 마을 밖으로 방출하기 위한 개인 및 단체간 합의점 도출하고, 이후 수목 반출입 관련 자발적인 신고와 검열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하회마을 내 식생경관에서 나타난 문화상의 특징을 통해 진정성 회복을 위한 접근에 있어 인간과 함께 영위하였던 문화적 가치 측면이 현황조사시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목현황조사는 연구에 필요한 대표가옥만을 조사하거나 주민이 거주하는 사유지의 성격에 의해 개별적인 조사가 어려웠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안동하회마을 전체 권역에 대한 수목현황 DB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하회마을 내 생육하는 수목 관련 문화상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 식생경관의 향후 모습을 가능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강거배(2000) 절제의 공간. 서강인문논총 12(1), pp.5-30.
2. 김기승(2015) 국가지정문화재 전통마을의 외래식물 현황.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신현탁, 김용식, 이명훈, 윤정원, 김기승(2011) 안동 하회마을의 외래식물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1(2), pp.141-143.
4. 오현경, 노재현, 최영현(2013)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일원의 식물상 및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1), pp.13-27.
5. 최영현(2014) 국가지정 문화재 민속마을의 외래식물 현황과 관리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